



“북으로 언제 가나” “지금 가지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한 후 함께 북측으로 넘어갔다 다시 남측으로 넘어오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손잡고 군사분계선 남으로 북으로



화동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화동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회담 전 환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훈민정음을 주제로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의장대 사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수행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양측 수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측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북측 김 국무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리수용,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뒷줄 왼쪽부터 남측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주영훈 경호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북한산 그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회담 전 북한산 그림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